

청소년 학교폭력의 예방과 기독교상담

강 경 미*

국문초록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부상한지 오랜 시간이 경과했지만 특별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먼저 학교폭력의 현황(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을 살펴보면, 재학기간 동안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이 22%로, 10명 중 2명이상이며, 학생들 중에 32.8%는 학교폭력을 가장 위험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은 장기간 지속되는 대인폭력으로 복합외상을 초래해서 심각한 정신장애와 함께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학생들의 폭력피해 은폐 및 축소로 인해 학교폭력이 만연되면서 학교와 교사, 학생들이 무력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가해청소년에 대한 징벌 및 당사자 간의 합의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일시적인 해결방법은 지양하고 근본적인 대처 및 예방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 역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고 대인관계를 개선해서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독교 상담방안으로 대인관계상담, 가족상담, 학교상담, 집단상담을 제시했다. 이는 학교폭력의 단기적 해결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방 및 대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단어 : 청소년, 학교폭력, 복합외상, 예방, 기독교상담

• 논문 투고일: 2011년 3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12일
*그리스도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11년 5월 6일

I. 여는 글

학교주변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 흉포화, 지능화, 집단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0)의 보고서에 의하면 재학기간 동안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22%로, 10명 중 2명이상이었다. 또한 학교폭력이 일반화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32.8%로, 폭력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이와 같이 교내 폭력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이 교사와 학교의 명예와 안위를 고려해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축소 및 은폐하려는 자세로 인해 더 큰 폭력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피해학생과 주변학생들 역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폭력피해를 적극적으로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은밀하게 만연되면서 학교와 교사, 학생들이 무력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²⁾

그러나 학교폭력은 적어도 일 년 동안 동급생들과 같은 학급에서 생활하면서 장기간 대인폭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외상이 아닌 복합외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들의 학교부적응은 물론이고, 대인공포증과 우울증, 비전형 정신분열증 등의 심각한 정신장애와 함께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³⁾ 따라서 현재 가해청소년에 대한 징벌 및 당사자들 간의 합의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해결방법을 지양하고 근본적인 대처 및 예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폭력 발생 시 폭력행동의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를 평가한 후에 치료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학교당국의 강력한 해결의지 및 개

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년도 학교폭력 실태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 19.

2) 이명자,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 학교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2004), 45.

3) 정지선 · 안현미, “청소년 학교폭력의 복합 외상적 (Complex Trauma)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1호(2008): 146.

입이 중요하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들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롭게 학교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학교상담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전문치료센터의 설립 및 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학교폭력문제는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가해 및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 및 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현황과 특성,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치료와 예방에 대해 기독교상담 차원에서의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학교폭력의 개념과 특성

1) 학교폭력의 개념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란 ‘학생 상호간에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신체적, 환경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으로 대인과 대물에 관계없이 교내 또는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심리적, 물리적 폭력’을 의미한다.⁴⁾ David Olweus는 학교폭력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면서 폭력의 유형에는 위협과 조롱, 괴롭힘, 심부름시키기, 따돌림 등의 비 물리적인 행위와 발로 차거나 때리고, 꼬집기 등의 물리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했다.⁵⁾ 또한 신혜섭은 학교폭력을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가하거나 당하는 강탈과 폭

4) 홍봉선 · 남미애, 『청소년복지론』 (서울: 공동체, 2007), 227.

5) David Olweus, *Bullying at School: What are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UK.: Blackwell Publishers, 1996), 147.

행, 공갈, 협박 및 성폭행' 등을 지칭하며, 일회성의 단순폭력이 아니라 상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대인간 폭력이라고 했다.⁶⁾ 따라서 다른 학생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협을 가하는 학교폭력행위가 학칙이나 법을 위반하게 되면 '반사회적 행동'에 해당되며, 체포와 함께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범죄행동'이라고 한다.⁷⁾

국내에는 2008년 3월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에 제시된 폭력행위를 위시해서 '성폭력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과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와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학교폭력에 포함되었다.

2) 학교폭력의 특성

학교폭력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최근의 학원폭력 양상을 종합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이 탈선의 차원을 넘어서 언어적·신체적·정신적 폭력이 동시에 자행되고 있으며, 또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학대성 폭력으로 성격과 내용이 잔인하고 집요해서 범죄수준에 이르고 있다.⁸⁾

둘째, 최근의 학교폭력은 2인 이상의 집단이나 조직적인 규율로 움직이는 불량서클, 성인폭력조직과 연계된 하부조직 등 집단화 및 조직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범을 범죄별로 보면 상해와 폭행은 감소하는 반면에 2인 이상 공동범행이나 흉기소지 범행, 상습폭행, 야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⁹⁾

셋째, 학교폭력이 일상화되면서 폭력행위가 일반학생들 사이에서도 쉽게

6) 노성호, "학교폭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 15권 1호(2004): 92.

7) 한상철 · 김혜원, 『청소년 문제행동』 (서울: 학지사, 2004), 321.

8) 양재민 · 정현화,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사회문제」 제5권 2호(1999): 98.

9) 신혜섭,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제12권 4호(2005): 124.

발견되면서 학생비행유형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폭력행사의 장소도 학교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폭력이 학생들의 일상과 주변에 만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교내 폭력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과 목격학생들이 ‘보복의 두려움과 신고해도 소용없음’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은밀히 행해지는 폐쇄화 경향과 함께 학교와 교사, 학생들이 무력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다섯째,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보복성 폭력이나 약물과 음주를 동반한 폭력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뚜렷한 목적과 동기 없이 우발적, 충동적인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유희비 조달과 호기심,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발생하는 폭력이 증가하면서 폭력가해학생들 대다수가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¹¹⁾

2. 학교폭력 현황과 유형

1) 학교폭력 현황

청소년폭력예방집단(2010)의 2009년도 전국학교폭력실태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폭력이유, 재학 중 피해경험, 폭력장소, 폭력유형, 피해학생의 도움요청 유무 및 재학 중 가해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¹²⁾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를 보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32.8%)이 그렇지 않다는 학생들(21.0%)보다 11.8% 많았다. 또한 폭력의 내용은 ‘신체폭행’ (24.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집단따돌림’ (21.6%),

10) 이명자,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2004), 27.

11) 김기현, “청소년문제의 변화와 청소년운동의 방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오늘의 청소년』 제9권(2000): 80.

1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년도 학교폭력 실태보고서』, 4-8.

‘괴롭힘’ (17.8%), ‘금품갈취’ (14.1%), ‘언어폭력’ (7.9%), ‘위협과 협박’ (4.4%), ‘성적 추행’ (4.3%), ‘빵셔틀’ (2.9%) 등의 순이었다.

둘째, 일반 학생들이 보는 학교폭력의 주요 이유는 ‘장난’ 이 3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이유 없음’ (19.6%), ‘오해와 갈등’ (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학기간 중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22%로 10명 중 2명은 폭력피해를 경험했으며, 이들 중 63%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고했다.

넷째, 학교폭력 피해기간은 ‘하루~2주미만’ (55.2%)의 단기간 피해가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2~3회’ (3.3%, 1.8%)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 ‘셀 수 없음’ (6회 이상)에 응답한 학생도 1.9%나 되었다.

다섯째, 폭력피해 장소는 교실과 복도, 화장실 등 ‘교내(71.6%)’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를 당하는 시간 역시 휴식 및 점심·수업시간으로 ‘교내(64.6%)’에 머무는 시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피해학생 중 도움요청 유무에 대해 ‘요청안함’ (64.3%)이 ‘요청함’ (35.7%)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보복당할 것 같아서’ 의 등이었다.

일곱째, 재학기간 중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대해서는 23%의 학생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59%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경험을 조사한 청소년 백서(2009)의 자료에 의하면<표 1>, 지난 2008년 일 년 동안 급우나 또래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은 12.9%로, 8명중 1명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의 유형으로는 욕설/협박이 12.8%, 금품갈취가 9.7%, 폭행이 7.1%, 집단따돌림이 3.4%의 순이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두 집단 간의 폭력피해 현황 차이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금품탈취와 협박피해가 많은 반면, 중고등학생은 금품탈취와 신

체적 구타가 많았으며, 폭력피해를 당한 남학생 중에 4분의 1 정도는 가해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32.8%는 교내 문제로 학교폭력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해학생들 중에 대다수가 폭력피해를 보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표 1〉 학생들의 폭력피해 경험과 유형(2008년)

(단위 : %)

	경험 비율					전혀 없음	무응답	주변의 목격 경험
		1년에 1~2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2회	주3회 이상			
욕설 / 헐박	12.8	7.4	2.3	1.2	1.8	87.1	0.1	24.6
폭행	7.1	4.3	1.1	0.7	1.0	92.7	0.2	21.5
금품갈취	9.7	6.6	1.9	0.6	0.5	90.1	0.2	19.6
집단 따돌림	3.4	1.8	0.5	0.2	0.8	96.4	0.2	2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 청소년 백서」

2)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능동적·수동적 폭력으로 구분한다. 특정 학생이나 집단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위해나 언어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능동적 폭력이며, 집단따돌림과 같이 한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경우는 수동적 폭력에 해당된다.¹⁴⁾ 또한 학교폭력은 신체폭행이나 금품갈취 등의 직접적인 폭력과 욕하거나 놀리는 등의 동료관계에서 소외시키는 간접적인 폭력이 있으며, 전체 학교폭력의 80%이상은 간접적인 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⁵⁾ 학교폭력의 유형을 행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13) 문화체육관광부, 「2009 청소년백서」(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0), 11-12.

14) 한윤희, “집단따돌림의 가해 - 피해에 따른 각 집단의 성격성향과 관련성”(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2001), 13.

15) 최윤자·김아영, “집단따돌림 행동과 자아개념 및 귀인성향과의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제17권 1호(2003): 152.

같다.¹⁶⁾

- (1) 타인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 구타를 하거나 힘껏 밀어붙이는 행위
- (2) 흉기 등을 이용해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위
- (3) 의도적으로 집단 활동에서 따돌리거나 제외시키는 행위
- (4) 주변의 다른 친구들의 접근과 도움을 제한하는 행위
- (5) 부적절한 언어로 별명이나 호칭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 (6)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7)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 (8) 원하지 않는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9)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10) 욕설이나 저급한 언어를 사용해서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행위
- (11)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협박, 비난, 위협하는 행위
- (12)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3.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체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며, 학교폭력의 배경 역시 매우 복잡적이고 다양해서 예외적인 상황이나 새로운 현상이 출현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면 개인적 요인과 가정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⁷⁾

16) 신혜섭,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25-26.

17) E. V. Hodges & D. G. Perry, “Personal and Interperson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by Pe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no.4 (1999): 680.

1) 개인적 요인

학교폭력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개인적 요인 중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의 심리적, 대인관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에 대해 기대감이 없고 심지어 자신을 확대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동이 소극적, 공격적,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둘째, 개인적으로 자아통제 능력과 타인을 존중하는 의식이 부족하다. 그 예로 가해학생의 경우 자신의 욕구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자아통제 능력과 타인에 대한 존중의식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보다 약한 학생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¹⁹⁾

셋째,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우울한 성향이 있으며,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에 대해 불만과 분노, 적대감 대해지고 있다. 대인관계 역시 소외·위축되어 있으며, 원만하지 못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²⁰⁾

넷째, 사회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개인과 또래집단과의 접촉이 확대되면서 불량친구와 집단과의 잘못된 관계형성이 학교폭력으로 연결되기도 한다.²¹⁾

2) 가정요인

가정은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서적, 교육적 환경으로 가정이 이러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들의 가치관과 정서가 혼란해지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청소년 폭력에 연유되어 있는 가해 및 피해학생 중에는 가정교육의 결함이나 가정불화, 가족 간의 갈등과 대립,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18) 김희수 · 이재도 · 홍성훈, “청소년의 학교폭력경험이 학교적응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한국교육문제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제26호 (2006): 83.

19) 양계민 · 정현화,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97.

20) 안현의, “복합외상(complex trauma)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6권 1호(2007): 12.

21) 신혜섭,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28.

과잉보호, 무관심 등 가정의 기능상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예로 다음과 같다.²²⁾

첫째, 폭력가정, 부모의 사망과 이혼, 경제 파탄 등의 요인으로 가정이 해체되거나 가정의 교육기능이 약화되는 경우에 자녀가 욕구불만과 스트레스를 자신보다 약한 학생에 대한 폭력으로 발산하면서 가해학생으로 발전하게 된다.

둘째,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자녀와 떨어져 생활하면서 적절한 관심과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자녀가 폭력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가해학생들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및 학업우주의 교육관으로 지나친 기대나 부담을 줄때 자녀들이 의도적으로 탈선행위를 하게 되면서 학교폭력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

3) 학교요인

현행 시험체제 중심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증상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학년에서는 등교거부나 심신의 장애로, 고학년에서는 현실도피성의 가출, 장기결석, 비행 등으로 표출되며, 학교폭력과도 연결되고 있다.²³⁾

첫째, 학교의 명예와 학력향상이 우선으로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을 중시하지 않는 학교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 비행의 형태로 학교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²⁴⁾ 둘째,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폭력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과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교육이 미흡할 경우에 학생들의 사소한 갈등과 다툼 등이 학교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셋째, 학교폭력 가해나 피해학생의 선도 및 보호지원을 위한 대처방안과 상담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해 올바른 문제해결 및 지도·보호가 학교현장에서

22) 한윤희, “집단따돌림의 가해- 피해에 따른 각 집단의 성격성향과 관련성”, 22-23.

23) J. L. Herman,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 Basic Books, 2002), 184-186.

24) 이상균,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9), 19-20.

실행되지 못하면서 학교폭력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²⁵⁾

넷째, 학교폭력 발생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학교의 명예 또는 교사의 안위를 위해 합의를 보거나 축소시키려는 학교의 미온적인 자세가 더 큰 폭력을 야기하고 있다.

다섯째,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실추되면서 교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고, 또한 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소홀하게 되면서 학교폭력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²⁶⁾

4) 지역사회 요인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사회규범의 약화와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배금주의에 의한 인간가치의 경시, 대중매체의 폭력성 범람, 사회범죄 및 폭력집단과 연결 등의 사회적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²⁷⁾

첫째, 대중매체의 폭력프로그램의 무방비적인 방출로 인해 언론 매체, 인터넷, 드라마 등에 폭력사실들이 노출되면서 이를 모방하는 학생들의 행동이 학교폭력과 연결되고 있다.

둘째, 사회 환경이 물질만능주의와 향락주의, 개인주의 위주로 전환되면서 이웃을 위한 봉사나 지적 탐구보다는 물질과 향락을 우선시하는 사회분위기가 학생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면서 학교폭력의 발생계기를 제공하고 있다.²⁸⁾

셋째,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명문고, 명문대 진학을 위주로 한 학업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소외감과 좌절감이 학교폭력으로 노출될 수 있다.

25) 이명자,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비교 연구”, 35.

26) 노성호, “학교폭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101.

27) 박지도·최현경 외, “불량행위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정신병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제40권 4호(2001): 646-47.

28) 신혜섭,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28.

넷째,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기회 및 시설부족의 원인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이 건전하게 설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업긴장이 학교폭력의 형태로 분출되고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의 미흡으로 학교폭력을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하나의 단계로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해결의지의 노력부족이 학교폭력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섯째, 2004년 학교폭력법 제정 이전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처가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학교나 정부의 각 부처 및 사회단체가 완벽하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와 학생은 물론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지만 체계적, 현실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학교폭력의 급증현상을 초래하고 있다.²⁹⁾

4. 학교폭력의 신체적·심리적 피해와 외상

동급생들과 적어도 일 년 동안 함께 생활하게 되는 학교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일회성이기 보다는 한 학기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동료학생을 대상으로 장기 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대인간 폭력으로 자행되는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단순외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제 2의 외상(type II trauma)' 또는 '복합외상(complex trauma)'의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³⁰⁾

복합외상은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같은 일회성 외상으로 인한 불안증상과는 다르게 정서와 인지, 행동, 대인관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29) 김희수 · 이재도 · 홍성훈, “청소년의 학교폭력경험이 학교적응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86.

30) 이소영, “소아·청소년의 재해정신의학”,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제13권 1호(2003): 41.

학교폭력 피해청소년들은 걱정, 슬픔, 긴장, 두려움과 분노 및 충동성의 정서적 증상³¹⁾과 함께 인지적으로는 학습문제와 긴장력 결핍증상을 호소했으며, 해리적 기억상실과 이인화(depersionalization) 증상이 출현하기도 했다.³²⁾ 또한 학교폭력의 심리적 고통이 신체적 증상으로 출현해서 복통이나 두통을 호소하였으며,³³⁾ 자신의 성격과 외모 등에 대한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인해 자기 비난이나 죄책감 등을 나타내었다.³⁴⁾ 대인관계 역시 매우 불안해서 타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신뢰부족으로 경계와 의심, 회피행동을 나타내었다.³⁵⁾ 이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복합외상으로 인해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진단을 받게 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해서 불안장애가 가장 많았고, 우울증, 정신분열증, 조증의 순으로 나타났다.³⁶⁾ 피해지속기간에 따라서 단기(1~3개월) 폭력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Reaction)로 진단되었다. 장기(1~6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함께 신체기형 공포장애와 대인공포증, 비전형성 정신병, 우울장애로 진단되었다.³⁷⁾

-
- 31) M. F. Peskin, S. R. Tortolero, C. M. Markham, R. C. Addy, & E. R. Baumler, "Bullying and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 Symptoms among Low-Income Black and Hispanic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0 (2007): 373.
- 32) K. Kumpulainen, E. Rasanen & K. Puura, "Psychiatric Disorders and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among Children Involved in Bullying," *Aggressive Behavior* 27 (2001): 104.
- 33) M. L. C. Campbell & A. P. Morris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Psychotic-like Experience and Appraisals in 14-16-year Old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5 (2007): 1584.
- 34) K. S. Berger, "Update on Bullying at School: Science Forgotten?," *Developmental Review* 27 (2007): 98.
- 35) 이은희·강은희, "청소년의 지배성, 우울감, 자기찬미, 신뢰결핍과 집단따돌림 행동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8권 2호(2003): 324.
- 36)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기관을 방문한 학교폭력피해자의 정신병리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2001), 27-8.
- 37) C. A. Courtois, "Complex Trauma, Complex Reactions: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1, no.4 (2004): 415.

5. 학교폭력 대책과 예방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자살사건이 빈발하면서 학교와 정부 및 관련기관 등 사회 각 층에서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의 피해자, 가해자 모두 청소년으로 폭력문제 해결의 원인과 주체가 될 수 있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 하고 사회적 시각과 사고가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청소년을 선도하고 수용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어야 하며,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의 쇄신 및 청소년의 지도와 보호에 민간단체와 지역주민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전환

현재 학교폭력을 포함해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주로 '가해-피해자의 이분화' 도식으로 소수의 문제학생들을 가려내어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에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폭력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2/3가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⁸⁾ 그러므로 소수의 문제 학생에게 다수의 선량한 학생이 피해를 당한다는 구도는 현실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한 개인에게 피해와 가해가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가해유발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³⁹⁾ 이와 함께 학교폭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인권존중으로 문제 해결과정에서 청소년이 대상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⁴⁰⁾ 또한 학교폭력은 학생간의 폭력 외에도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생, 지역사회

38) 노성호, "학교폭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91.

3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서울범죄백서』 (서울: 법무연수원, 2002), 92.

40) 양계민 · 정현화,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 피해자 일반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99.

의 제도화된 폭력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진정한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화된 폭력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며, 학교폭력의 정의도 ‘학교에서의, 학교에 의한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정의 되어야 할 것이다.⁴¹⁾

2)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환경조성

최근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검찰이 주도적으로 민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 청소년관계 지도자들이 지역사회 협의체에 소속되어 지도활동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위주에서 치료적 대처로 전환해서 또 다른 폭력과 범죄의 재생산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와 상담사, 지역사회 청소년 관계기관들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 개인과 가정, 학교, 사회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서 학교폭력을 총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1) 학생 개인의 역할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주체는 청소년 본인으로 피해 및 가해 학생의 성격이나 특성을 파악해서 적절한 교육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⁴²⁾

첫째, 청소년 개인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감을 확립하고 또한 자기 통제능력을 배양해서 성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생들이 학교에서 불량친구나 집단에 합류하게 되면 학업에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과도 연계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41) 문용린,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서울: 학지사, 2006), 84-85.

42) 안현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1호 (2005): 221.

셋째, 폭력을 당하거나 금품을 빼앗겼을 경우에 부모나 교사에게 즉시 알리도록 지도해서 계속적으로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교내에서나 교외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고, 혼자서 우범지대를 배회하지 않도록 한다.

(2) 가정의 역할

가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청소년 폭력문제의 대응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간의 관계개선이다. 즉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독자성을 인정, 자녀의 능력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가정환경과 양육태도가 요구된다. 특히 가정폭력은 자녀들이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모방하게 되면서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⁴³⁾ 또한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 독서실에서 비행이나 폭력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수시로 관찰하고, 평상시에 부모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서 자신의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⁴⁴⁾

(3) 학교의 역할

학교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생활의 장이며,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교육의 장이다. 따라서 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지양하고 학교 본래의 인성과 학습의 교육현장으로 전환해서 학교폭력, 따돌림 등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해결에 선두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청소년들은 학교폭력 해결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친구'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해결을 처벌이나 외부적 힘에 의존하기 보다는 교내에서 처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⁴⁵⁾

43) 양주연, "아내폭력노출이 청소년자녀의 학교폭력 태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Mentor와의 관계 및 사회심리적 학교환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4), 47.

44) 문용린,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92.

45) 이규미·문형준·홍혜영, 『상담사례를 통해 본 "왕따" 현상』(서울: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1998), 68.

둘째, 교사체벌은 효과의 즉시성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오랜 기간 존속해왔던 훈육방법이지만 폭력은 학습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육적인 체벌은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셋째, 학업성적 중심의 학교환경으로 인해 높은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학생들의 소외감과 좌절감은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폭력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따라서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학교상담을 제도화해서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의 고민과 욕구불만 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학교폭력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 및 교내의 불량서클에 대한 지도를 통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한다.

넷째,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제나 음악회 개최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청소년들의 특기나 취미활동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학교장 중심으로 형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사전교육으로 중재과정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문상담교사와 책임교사를 배치해서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기별로 1회 이상, 시간 및 강사를 선정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4) 지역사회의 역할

학교폭력은 지역사회문화와도 연관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사회의 폭력문화와 유해환경은 청소년들의 폭력행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역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⁴⁶⁾

첫째, 청소년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와 학원가에 유해업소들이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이 그 곳의 폭력문화를 학습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행동

46) 최은정·김형모,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이 학교폭력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제8권 1호 (2006): 33-50.

을 제한하기에 앞서 이러한 사회문화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학교 및 청소년기관에서 폭력피해에 대한 신고전화나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담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자원봉사자 활용과 보호관찰제도, 그룹홈, 쉼터 등의 이용을 도와야 한다. 또한 학교 폭력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절차과정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이나 변호 등의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보장되어야 한다.⁴⁷⁾

셋째, 학교폭력의 재발방지와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들이 과거의 생활을 정리하고 학생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문치료센터의 설립과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넷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9조’(특별시, 광역시, 도의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에 의거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실천한다.

(5) 정부·관련기관의 역할

학교폭력은 지역특성에 따라 폭력의 성격과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함께 지역사회 청소년단체와 민간단체와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제안한 기본정책 내에서 민간단체들이 효율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지도·감독이 있어야 한다. 그 예로 일진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이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과 배움터 지킴이 배치 및 학교경찰제도가 도입되는 등,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신학년도 3월초

47) 이용교, “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제5권 2호(2003): 10.

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3월 16일~6월 15일까지 운영기간 동안 자진신고 가해자 7,515명과 피해신고에 의한 가해자 6,099명이 가해 및 피해사실을 보고했다.⁴⁸⁾ 또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 피해학생, 비행학생 등에게 맞춤형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안전 통합시스템 구축사업(Wee Project)을 실시하고 있다. Wee 프로젝트(We+emotion+education)는 청소년들의 문화와 감성을 기초로 문제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문화된 상담서비스 프로그램이며, 학교차원의 1차 안전망으로 친한 친구교실(we class)과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2차 안전망의 학생자치센터(we center)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에 학교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3차 안전망 장기교육센터(we school)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⁴⁹⁾ 또한 현재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안내 지침서’를 제작하여 각 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 교육하도록 보급하고 있다. 이 지침서의 구성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⁵⁰⁾

첫째, 학교폭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예로 피해 및 가해학생의 특징과 단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대처방안과 학교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분쟁 조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법안에 따라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문서화 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및 서류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셋째, 예방 프로그램은 초·중등학생용으로 세분화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적인 특성과 능력, 태도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48) 문화체육관광부, 『2009 청소년백서』, 32.

49) 김희수·이재토·홍성훈, “청소년의 학교폭력경험이 학교적응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94.

50) 문용린,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162-167.

두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초기단계에 교사가 개입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은 폭력을 경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부적응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능력 및 태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학생의 직접 참여를 통해 개인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신의 가해행위에 직면해서 그들의 행위가 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체험하도록 되어 있다.

여섯째,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으로 먼저 폭력행동의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를 평가한

후에 사건중재 과정으로, 1단계 사건접수에서 2단계 위원회 개최, 3단계 상담교사의 관련학생 면담 및 문제해결 방법논의와 중재방안 의견조율, 4단계 사건관련 학부모와의 면담, 5단계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조정, 6단계 중재안 확정 및 통보, 7단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활동과 상담실시 등 7단계로 진행된다.

6. 학교폭력 예방과 기독교상담

학교폭력의 발생원인은 개인적, 가정적, 학교 및 지역사회요인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생들이 호소하는 우울과 불안, 신경증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교우관계 및 학업상의 문제 대부분이 이들의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와 직접 연관되어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자들은 학교폭력과 관계된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 중에서 특히 대인관계 특성이 사회적 장면에서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는지 상세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장기적 예방차원에서 기독교상담은 기독교 대인관계의 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성경적 이웃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를 위시해서 기독교상담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회교육

및 상담은 물론이고 학교와 사회기관들과 적극 협력해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과 기독교상담의 목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개개인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권면하고 있다.⁵¹⁾ 즉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또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빌2:3)”라고 한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상대방의 반성·모습과 가치를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나를 내세우기 보다는 서로 대접하고 위로·봉사하며,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마음을 같이 하는 협력, 용서와 이웃사랑의 결과로 평안함과 희락을 얻는 것이다.⁵²⁾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기독교상담의 기본 목표는 첫째, 성경의 가르침을 기초로 인간관계의 가치체계를 새롭게 형성하도록 돕는다. 둘째, 기독교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자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친구관계를 개선하도록 한다. 신앙의 실천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삶과 태도와 생활양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 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교폭력 예방과 기독교상담 방법

학교폭력에 연계된 학생들과 관련해서 기독교적으로 먼저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의 참된 우정관계를 고찰하면 첫째, 진실한 관계로 요나단은 변함없는 우정으로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돕고 피난처를 마련해 주었다. 둘째, 의로운 관계로 그들은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초월해서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살

51) 양참삼, 『인간관계 예수님의 눈높이로』 (서울 : 예찬사, 1996), 251-254.

52) 김승규,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교인들의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육대학원, 1997), 17-18,

렸다. 셋째, 그들은 약속에 충실한 관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닌 서로의 교제에 충실하고 자신을 희생했다.⁵³⁾ 따라서 청소년들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친구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함께 동행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독교 상담차원에서 상담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인관계상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간관계 형성으로 기독교인의 인간관계는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과의 축복된 관계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 심리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육하고 상담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자는 대인관계상담을 통해 첫째, 청소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돕는 관계가 형성되도록 한다. 둘째, 인간은 홀로 완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짐을 함께 지는 협력의 관계가 형성되도록 한다. 셋째, 서로 용서하는 관계의 형성으로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는 용서가 전제임을 인식시키고 학교폭력피해의 분노와 원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이해와 수용의 관계형성으로 기독교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 판단하고 비평하기 보다는 이해를 전제로 서로 연합하는 관계가 형성되도록 한다.

(2) 가족상담

청소년 폭력에 연유되어 있는 학생들 중에는 가정교육의 결함이나 가정불화, 가족 간의 갈등, 부모의 무관심 등 가정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부모교육과 가족상담을 통해 먼저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부모와 상의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가정의 분위기와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원만한 가족관계를 수립한다. 또한 학교폭력은 피해자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를 위시해서 가족전체가 마음의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과 부모를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용해서 하나님 말

53) 대한기독교성결교회, 『가정에배서』 (서울: 대한기독교성결교회 편집부, 1998), 52.

숨 안에서 믿음, 기도, 회개를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과 부모들이 폭력의 나쁜 기억에서 벗어나서 상처를 회복하고 변화된 행동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3) 학교상담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사태 해결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친구’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처벌이나 외부적 힘에 의한 일시적 문제해결보다는 학생자신의 변화와 함께 친구 및 선생님과의 교내관계를 개선하는 회복 및 예방상담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상담은 주로 소수의 문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상담에서 기독교상담을 적용해서 친구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상대방의 긍정적인 모습과 가치를 수용하고 서로 나누는 원조관계를 형성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경 말씀을 기초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서로를 섬기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추도록 한다.

(4) 집단상담

집단상담은 자기이해와 자기수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5~10명의 소수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가족과 대인관계, 자아개념, 개인적·사회적·교육적 문제에 관련된 개인적 내용을 함께 의논하면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자는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집단상담을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의 어려움과 고통을 내어놓고, 서로 이해·공감하면서 심리적 고통에서 해방되어 행동이 변화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됨을 경험함으로써 반성과 화해로 기존의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하면서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동과 사회적 기술을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서로의 문제를 놓고 집단원 상호간의 기도와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기술과 인간관계능력도 개선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닫는 글

최근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정리하면 첫째, 학교폭력의 성격이 비행의 차원을 넘어서 내용이 잔인하고 집요해서 범죄수준에 이르고 있다. 둘째, 학교폭력이 보편화되면서 다수의 학생들이 이를 심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 셋째,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학대성 폭력으로 복합외상을 초래해서 피해학생들이 심각한 정신장애와 함께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학교폭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교사들의 은폐와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더 큰 폭력을 야기하고 있다. 여섯째, 학교폭력을 가해자 처벌과 당사간의 합의 위주의 단기적 해결방법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상담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역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9조’ (시. 도의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를 제정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과 배움터 지킴이 배치 및 학교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신 학년 초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각 시·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문제해결 지침서’를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 상담실을 확대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해 범사회적인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차원에서 폭력피해 및 가해 학생들의 대인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의 이웃사랑과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더 나아가 폭력에 연관된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친구들과 함께 동행 할 수 있도록 기독교 방안으로 대인관계상담, 가족상담, 학교상담, 집단상담을 제시했다. 이는 학교폭력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

하기 위한 신앙적 교육과 상담의 방법으로 많은 기도와 시간, 노력이 요구되지만,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반드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 김기현. “청소년문제의 변화와 청소년운동의 방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오늘의 청소년」 제9권 (2000): 78-88.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가정예배서』. 서울: 대한기독교성결교회 편집부, 1998.
- 김승규.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교인들의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육대학원 1997.
- 김희수·이재토·홍성훈. “청소년의 학교폭력경험이 학교적응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한국교육문제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제26호(2006): 79-97.
- 노성호. “학교폭력에 대한 기존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5권 1호(2000): 87-118.
- 문화체육관광부. 『2009 청소년백서』.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0.
- 보건복지가족. 『의료기관을 방문한 학교폭력피해자의 정신병리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2001.
- 박지도·최현경·장우성·조동환·김정기. “불량행위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정신병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제40권 4호(2001): 640-655.
- 신혜섭.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제12권 4호(2005): 123-149.
- 안현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1호(2005): 217-231.
- 안현의. “복합외상(complex trauma)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6권 1호(2007): 1-21.
- 양계민·정현화.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 피해자 일반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5권 2호(1999): 91-104.
- 양주연. “아내폭력노출이 청소년자녀의 학교폭력 태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Mentor와의 관계 및 사회 심리적 학교환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2004.

- 양참삼. 『인간관계 예수님의 눈높이로』. 서울: 예찬사, 1996.
- 이규미·문해준·홍혜영. 『상담사례를 통해 본 “왕따” 현상』. 서울: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1998.
- 이명자.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기독교사회 복지대학원, 2004.
- 이상균. “학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기독교사회 복지대학원, 1999.
- 이소영. “소아·청소년의 재해정신의학”.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제13권 1호 (2003): 38-46.
- 이용교. “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제5권2호 (2003): 5-16.
- 이은희·강은희. “청소년의 지배성, 우울감, 자기찬미, 신뢰결핍과 집단따돌림 행동 간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8권 2호(2003): 323-353.
- 정지선·안현미. “청소년 학교폭력의 복합 외상적 (Complex Trauma)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1호(2008): 145-160.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년도 학교폭력 실태보고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
- 최윤자·김아영. “집단따돌림 행동과 자아개념 및 귀인성향과의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 연구」 제17권 1호(2003): 149-166.
- 최은정·김형모.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이 학교폭력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제8권 1호(2006): 33-50.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서울범죄백서』. 서울: 법무연수원, 2002.
- 한상철·김혜원 외. 『청소년 문제행동』. 서울: 학지사, 2004.
- 한윤희. “집단따돌림의 가해- 피해에 따른 각 집단의 성격성향과 관련성”.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2001.
- 홍봉선·남미애. 『청소년복지론』. 서울: 공동체, 2007.
- Berger, K. S. “Update on Bullying at School: Science Forgotten?” *Developmental Review* 27(2007): 90-126.
- Campbell, M. L. C. & Morrison, A. P.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Psychotic-like Experience and Appraisals in 14-16-year Olds.” *Behavior*

- Research and Therapy* 45 (2007): 1579- 1591.
- Courtois, C. A. “Complex Trauma, Complex Reactions: Assesment and Treatmen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1, no.4 (2004): 412-425.
- Herman, J. L.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 Basic Books, 2002.
- Hodges, E. V. & Perry, D. G. “Personal and Interperson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by Pe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no.4 (1999): 677-85.
- Kumpulainen, K., Rasanen, E. & Puura, K. “Psychiatric Disorders and Use of Mental Health Series among Children Involved in Bullying.” *Aggressive Behavior* 27 (2001): 102-110.
- Olweus, David. *Bullying at School: What are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UK.: Blackwell Publishers, 1996.
- Peskin, M. F., Tortolero, S. R., Markham, C. M., Addy, R. C., & Baumler, E. R. “Bullying and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 Symptoms among Low-Income Black and Hispanic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0 (2007): 372-375.

【 Abstract 】

Christian Counseling for Adolescence School Violence

Kyung Mi Kang

Korea Christian University

School violence float around for a long time(in this age) as serious social problem, but we were able to search the problem solving approach. At first, we observe the school violence following by the prevention group for adolescence violence in 2010, during the school period, adolescence of 22% have been experienced about damage of violence. Among them in 32.8%, they felt school violence is the worst dangerous experience. It's keeping for a long time period of school life of them, and it changed into the serious psychological disorder. In addition, it has led to adolescent suicide. In spite of that school violence spread out widely, were face with concealed and retrenched until now, therefore, students and teacher were face with incapacity stage.

Currently, an assailant has been punishing or solving with mutual agreement, but we should avoid the temporally expedient coping device. We must suggest fundamental coping device and preventive plan. Moreover, church has to take charge of preventive education as the faith education and counseling organ within the Christianity to them.

This study will give the aim, how to be not the sufferer can control their mind and activity, and I suggest the alternative plan in Christian counseling: these are personal relationship counseling, family counseling, school counseling, and group counseling. But it require for a long period of time on behalf of procure the effectiveness, not for a short space of time.

Key words: adolescence, school violence, complex trauma, prevention, Christian counseling